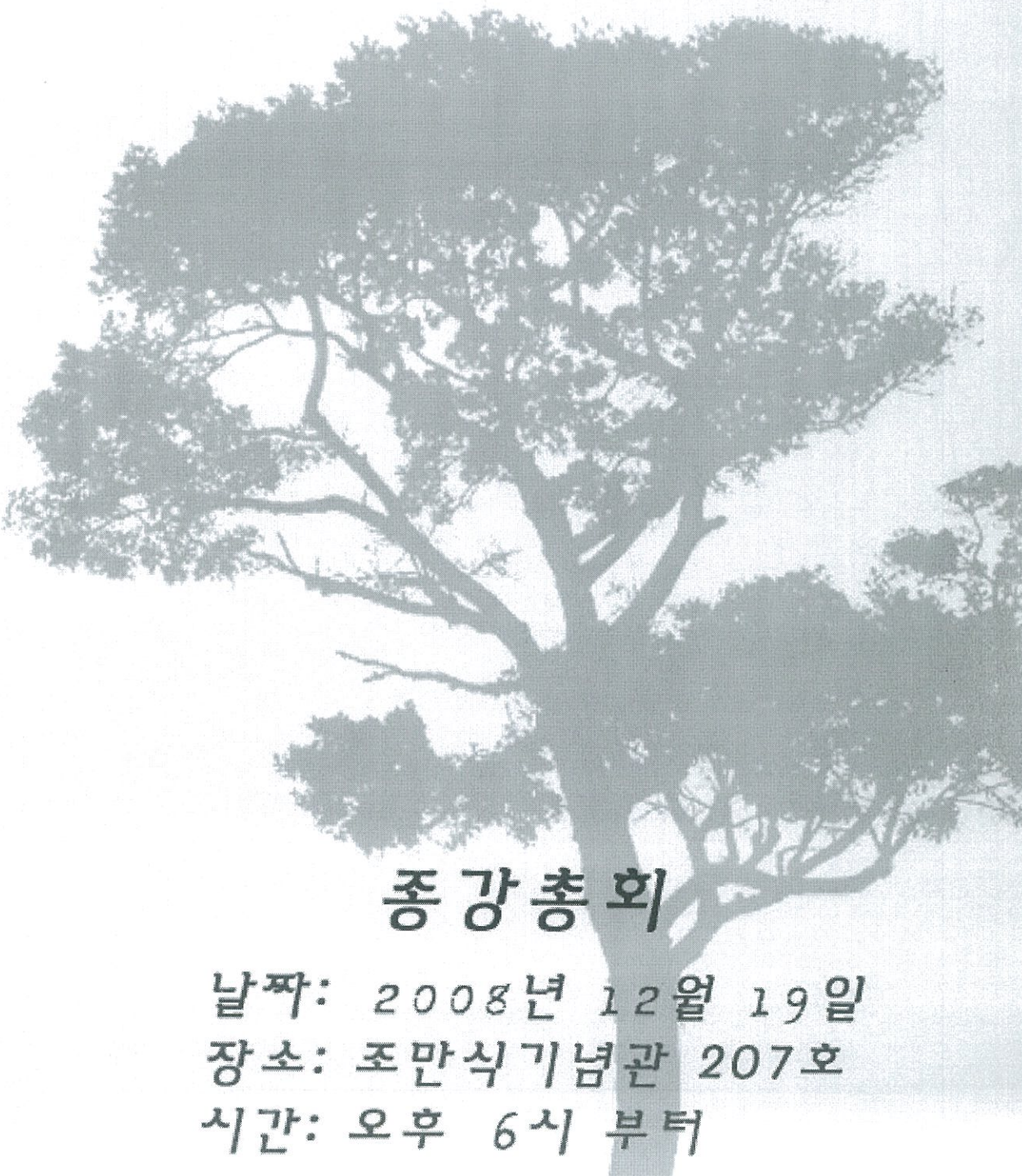


2008년 송실대 철학과 학생회 결산집



종강총회

날짜: 2008년 12월 19일
장소: 조만식기념관 207호
시간: 오후 6시부터

- 2008년 숭실대학교 철학과 종강총회 -

일시: 2008년 12월 19일 늦은 6시

장소: 조만식 207호

진행: '03 최승해

▼식순

- 개 회
- 학생회장 인사말
- 사 업 보 고
- 회 계 보 고
- 논 의 안 건
- 폐 회

차례

1.환영의 글

-백도형 학과장 교수님

2.2008학년도 승실 철학을 정리하며

-김선옥 교수님과의 짧은 인터뷰

3.2008년 '시대유감 행동하는' 제 17대 철학과 학생회 사업보고

4.2008년 '시대유감 행동하는' 제 17대 철학과 학생회 회계보고

5.2008년 '시대유감 행동하는' 제 17대 철학과 학생회장 퇴진인사

6.'시대유감 행동하는' 제 17대 철학과 학생회 임원진들의 글

-이성현, 송승우, 김진원

7. "1800의 오케스트라! Yes, We Can!" 41대 인문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인터뷰

8.학교 근처 맛집 소개

- 늦게 알려 주는 이유가 있을까?

9.승실대학교 철학과 선생님들 저서 목록.

10.승실대학교 철학과 학생회칙

환영의 글

철학과의 여러 벗들에게

안녕하세요? 학과장 백도형입니다. 2008년 한 해도 이제 마지막 얼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철학과 학우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요?

혹시 매일 매일의 수업과 시험과 아르바이트 등에 쫓기는 하루하루를 보내지는 않았나요? 혹시라도 그랬다면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방학을 맞으면서 올 한 해가 주는 의미를 되새겨보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엮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때로는 뒤를 돌아보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방학 때 취업을 위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독서나 영화, 미술, 음악 등 문화 체험의 기회를 풍성하게 갖기를 권합니다. 우선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혼자만의 체험 시간을 갖고 음미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친구들과 함께 체험하며 감상을 나누고 토론도 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바랍니다. 독서의 경우, 특별히 권하는 것은 도서관 활용입니다. 도서관을 그저 시험 때 공부하는 자습실로만 생각하지 말고, 도서관 서가에서 고전의 숲들을 거닐며 자신의 세계를 마음껏 구상해 보고 탐색해 보는 귀중한 기회를 가져보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09년은 기축년, 소의 해입니다. 저나 여러 분들이나 소와 같이 넉넉한 마음을 가진 좋은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학과장 백도형 드림

2008년 승실 철학을 정리하며...

-김선옥 교수님과 짧은 인터뷰-

학생회장('03 최승해) : 2008년 승실대 철학과를 돌이켜 보신다면, 작년과 재작년을 놓고 비교해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김선옥 교수님:올해 사실 제가 세계철학대회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1학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 지도교수 면담도 제대로 못 하고 좀 더 학생들을 신경 쓰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무척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계철학대회를 하면서 우리학교 학생들이 자원활동단으로 기여했던 부분들이 어느 대학 학생들보다 더욱 활발하고 활동적으로 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조직적인 것도 그렇고 헌신적인 것도 그렇고, 자원활동단을 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즐기면서 하던 부분들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세계철학대회가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 다시 열릴 수 없는 큰 규모의 대회였는데,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우리 철학과 학생들과 같이 나눴다는 것에 대하여 무척 기쁘고,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그래서 대회 기간에 무척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회장 : 2008년 한 해 수업을 하시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김선옥 교수님:해가 거듭 될수록 철학공부가 더 재밌고 학생들이 활발해 지는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이 좋군요. 지난번 서양의 지혜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 때 몇 주의 걸쳐서 토론 수업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때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얼마나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란 주제로 제가 사회를 보고 찬성과 반대로 토론을 진행 하였는데,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나온 하나의 부작용 중의 하나로 오타쿠 현상을 지적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한 학생이 나를 쳐다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은 오타쿠가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더니 “오타쿠가 되어 보신 적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개콘 달인의 유행어를 표절) 갑자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혼이 나가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폭소를 터트리는 상황이 발생해서 무척 웃었던 기억이 나는군요. 사실 그 때, 종이를 돌돌 말아서 머리를 (크리티컬로)한 대 쳐주고 싶었지만 기회를 놓쳐서 그러지는 못 했고... 하하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군요. (같이 있었던 '00 오상현 선배와 학생회장은 의심의 여지없이 '08 윤상훈을 떠올림. 하지만, 확인 결과 윤상훈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남)

학생회장 : 끝으로 철학과 학생들에게 송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교수님: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 영향이 우리 학생들에게 다 돌아올 테니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 좌우 되면 안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 중에 하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다가오는 한 해도 열심히 생각하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새해에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것을 내년 1학기, 2학기 기본방침으로 삼아서 학생들을 조금 괴롭힐 생각입니다. 열심히 공부 합시다!